7강 공리주의와 유교적 윤리 ②

(1교시)

◆ 유교적 윤리와 한국인의 행복

※ 학습목표
유교적 세계관을 통해 현대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민족주의와 행복
민족주의나 혹은 집단감정은 단결과 정체성, 그리고 통합의 측면에서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나친 동질감은 사태를 집단책임으로 돌리거나, 집단이 개인의 일에 휘말려 들게 되는 우려가 있다. (조승희 사건의 예) 과거에 나라 없는 설움을 겪었기에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개체와 전체의 동질화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식의 동질화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가족 안에서의 효 개념과 행복
한국인의 생애 주기는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은덕을 받아서 성장하고, 장성한 뒤에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give and take가 성립된다. 이러한 관계는 봉건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보험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자식이 모시는 것 이상의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효"만으로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www.artnstudy.com

(2교시)

◆ 유교적 의미에서의 행복과 사회제도

※ 학습목표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지 생각해본다.

▲ 유교적 한국 사회의 문제점
유교적 의미에서 행복은 가족 안에서 각자의 본분을 지키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가족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 이러한 부모와 자식의 주고받음 관계로서의 시스템은 잘 기능하면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관계가 되고, 자신의 삶이 없어져 버려서 문제다.

전통적으로 유교적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는 것은 일종의 당위가 된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잘 교육시키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자식을 위한 삶이 시작된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 의해서 살아왔고, 결혼 하고 부터는 자식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져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부양할 책임을 떠맡게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쩌면 일평생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제도 개혁
-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삶의 결과로, 자신만의 세계가 없어서 방황하게 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병이라도 걸리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자식들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자식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것을 하기 보다는, 부모님의 병원수발이나 병 수발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결국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연금제도 등을 도입해서, 개인이 하기 힘든 것들을 여러 명이 부담해주거나, 국가가 해결해 주는 방식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식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 나름의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려면 교육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국가가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다. 무이자 장학금제도를 도입하고, 졸업하면 차츰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부담해야할 기간이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식도 후에 부모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야 독자적인 삶의 영역이 확보될 수 있다.

www.artnstudy.com